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를 설립하자’

미디어는 과학문화 확산의 최대 무기

최근 미디어가 다매체, 다채널로 다양화하면서 일반인들이 매체에 직접 참여하려는 욕구가 증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제가 갖춰지고 있어 과학기술계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과학기술계는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무관심하고 그 의미가 파악이 안돼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내년 2002년 3월부터 70여개 위성방송 채널이 나오며, KBS는 월 1백분 이상의 시간을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한 방송법이 시행돼 이미 지난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4편의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디어에 직접 참여하는 하나의 방안인 미디어센터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는 남의 일인 양 조용하다.

미디어센터가 무엇이며 특히 과학기술 미디어센터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미디어센터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디어센터는 영상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해 교육, 시설 임대, 자료 조사 등을 담당하는 일종의 영상문화센터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민간에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란이 치열한 것은 이와 관련된 제도적 체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2월 통과된 방송법이다.

이 법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Public Access)을 보장



張在烈
(한국과학문화진흥회 사무총장)

하기 위해 방송시간의 의무 할당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이 포함됐다. 즉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보내려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근거가 갖추어진 것이다.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두된 것이 미디어센터다. 영상 자료는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상물 제작에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디어센터의 개념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더욱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KBS 방영으로 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기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제43조 1항 및 44조 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 프로그램이 못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동안 나간 것은 ‘호주제 폐지, 평등 사회로 가는 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등 사회성 짙은 몇 작품이었다. 이나마 관련 기관의 비협조, 프로그램의 준비 부족으로 9월 이후 중단된 실정이다.

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는 미디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는 과학문화의 확산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위상에 걸맞는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활발한 미디어센터 건립운동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시청자 및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미디어센터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추진 내용.

서울 :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송위원회에 미디어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2002년부터 이를 수용할 태세에 있다.

안양 : 안양시 청소년수련원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수련원은 자체 예산 3천만원, 시 예산 7천만원, 국고 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대전 : 엑스포공원 안에 미디어센터를 만들자는 시민운동이 벌어져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4억5천만원의 초기 예산을 대전시에 제시했다.

이밖에 광주, 전주, 청주, 마산 등에서 미디어센터 건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작 가장 강력하게 미디어센터 확보운동이 일어나야 할 과학기술 분야는 말이 없다.

과학문화의 확산을 바라다면 그 최대의 무기는 미디어인데도 말이다.

왜 과학기술 미디어센터인가?

최근 등장한 미디어로는 인터넷, 케이블TV, 위성방송, 디지털 방송, 소출력 방송 등이 있다. 그 동안의 KBS나 MBC 같은 공중파 방송 중심에서 미디어가 다양화된 것이다. 이에 채널과 방송시간은 급증했으나 이를 채울 내용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현재의 케이블TV 방송을 보면 잘 드러난다. 만일 계획대로 1백50여개 위성방송 채널이 등장하면 어떻게

흔히 말하는 시장원리에 팽개쳐 두면 그나마 돈이 된다

고 하는 홈쇼핑이나 오락 채널이 극성을 부릴 것은 뻔하다. 이 와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일 것이다.

공공자산인 전파 미디어를 장삿속에만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는 미디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즈음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는 과학문화의 확산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위상에 걸맞는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기반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럼 과학기술 미디어센터의 주 역할은



10월 20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미디어센터 건립에 관한 시민 토론회 장면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는 과학기술 관련 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생성하는 단체나 개인 및 여타 미디어센터를 아우르는 기능이다. 파편화된 것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상호 연계해 주는 역할이다.

이것이 형성되어야만 저비용, 고효율로 과학기술 자료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둘째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이다.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 장비를 다루는 기술, 정보를 얻거나 활용하는 노하우, 다른 미디어센터에 대한 과학기술 미디어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흔히 미디어 전문가들은 미디어센터가 종합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는 과학기술 자료 제작에 관심있는 교사, 각급 학생, 일반인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센터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서로 연결하고 맺어주는 것이다. 이제 하늘의 별, 곤충의 생태를 기록하는 과학기술 아마추어 작가들이 나올 때이다.

셋째는 필요 장비 및 시설의 제공이다.

어무래도 과학 영상물 제작에는 장비와 시설이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필요하다.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므로 우수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창작을 북돋을 수 있다. 지원을 통해 인력과 사회적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방의 다양한 자원(자연 또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과학기술 콘텐츠의 생산이 활발해 질 것이다.

넷째는 영상 등 과학기술 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이다.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 프로그램, 너무도 빈약한 국내의 제작기반, 이를 그나마 보완하려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데이터화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한 분야에서 꾸준히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같은 여러 기능과 역할을 요약한다면 '과학기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활용되도록 자금을 주고 도와주는 일이 과학기술 미디어센터의 본질'이라 하겠다.

지금부터 과학기술 콘텐츠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야 미디어

어 홍수 속에서 과학 프로그램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추진 전망

말은 맞지만 무슨 돈으로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힐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나 관련 기관의 초기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지원은 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한 명분과 근거를 갖고 있다.

일반의 미디어센터가 사회적인 지원이 요청된다면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방송발전기금이 이미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 38조에 의하면 이 기금은 방송공익사업, 방송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문예진흥사업, 시청자지원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미디어센터가 위 사업중에 해당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금의 운용은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6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 되어있다. 이 기금은 2001년 연 말까지 약 1천2백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미디어센터에 대한 실행계획 연구를 시급히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 과학기술계의 협력을 거쳐 외부지원 요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과학기술 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이찬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회장은 과학기술계 밖의 움직임과 최근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로 볼 때 과학기술 미디어센터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월 초 협회 내에 미디어센터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무자로 필자를 선임한 바 있다.

협회는 우선 인터넷을 과학기술 미디어센터의 정보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인터넷 사이트를 크게 개편했다. 협회는 또 과학기술 미디어센터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미디어에 과학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국민적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업무다.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싶다. ①